

노량진(오전)	6시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2시
오후(4부)	5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2시
4부(오후)	5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동 우 켈 럼

열매 맺는 삶

목회 초에 나는 “3년 나를 따라왔는데도 복을 못 받았으면 교회를 떠나라.”는 말을 자주 했다. 이 말은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삼 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눅13:6~7)라는 말씀에 근거한 것이다.

3년이 되도록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나무에 문제가 있듯, 나를 따라 죽기 살기로 3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복을 받지 못했다면 뭔가 문제가 있겠다 싶어 한 말이다.

사실 이 말을 듣고 ‘아차!’ 싶어 각성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아 큰 결실을 맺는 자들이 많았다. 그런데 혹자는 이 말을 듣고 ‘복을 못 받았으니 이제 떠날까? 복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퇴출인가?’라고 생각한 자도 있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라. 자식들이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엉망일 때 부모들이 “공부 때려치워라.”며 역정을 냈다면, 그 말이 정말 공부를 하지 말라는 뜻이었나. ‘제발 공부 좀 열심히 하라’는 부모의 간절함이 깃든 말이 아닌가. 내 맘이 그 마음이다.

나 같으면 이 소리를 에너지 삼아 이런 마음과 각오를 갖겠다.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 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여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눅13:8~9).

이것이 무슨 말인가? “그래, 더욱 분발하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심고, 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꼭 복을 받자. 그도 했고(He can do it), 그녀도 했는데(She can do it), 왜 나만 못했을까(Why not me?)”, 이런 각오가 있어야 발전과 성장이 있다.

성장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다. 삶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나를 진단해보는 시간을 갖자. 내 삶에 있는 무성하나 열매가 없다면 무엇이 부족한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두루 파고 거름을 줘서 꼭 열매를 맺는 참 신앙인이요, 알차고 멋진 삶이 되도록 하자.

관심을 가지면 보이고 들린다

주일 4부 예배(오후 5시)가 신설되고 목사님께서 관심을 집중하고 계신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려는 목회의 열정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관심을 끌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만 끌면 만사형통이요, 내 목회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끌 수 있을까’에 포커스를 맞추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이 뭐라고 하든지 ‘어떻게 하면 더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애통하며 몸부림쳐온 36년이었습니다. 철산리 개척 시절, 사과를 심고 그 사과 씨 속의 사과는

눈에는 머리카락이 동아줄로 보인답니다. 그만큼 사업성공을 위해 ‘어떻게 하면 더 고객을 유지할 수 있을까’ 머리를 굴리니, 곧 관심을 가지니 눈에 보이는 겁니다. 자신이 다니는 직장에 애정과 관심이 있으면 한시라도 더 빨리 나가 청소하며 정리정돈하고 맡겨진 일을 넘어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의 작은 소리라도 크게 듣고 문제해결을 위해 부단히 애쓰고 노력합니다. 따라서 이처럼 관심 있는 자, 지혜롭고 부지런한 자에게 일을 맡겨야 성공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자는 관심이 없습니다. 주변이 어찌 돌아가든 복지부동입니다. 기도원에 내려가 보았더니 주변 산의 큰 나무들을 죄다

공자가 제자 자공을 시장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만 시장 상인과 분쟁이 났는데, 알고 보니 자공의 말이 옳았습니다. 그런데 자공은 ‘자신이 틀리면 두 배로 값을 쳐주겠다.’ 한 반면, 그 상인은 ‘자신이 틀리면 내 목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큰소리치는 놈이 이긴다고 결말이 안 나자 둘이 공자를 찾아와 판결을 요청했는데, 공자가 다 듣고 나더니 상인의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닙니까? 부아가 난 자공이 떠나겠다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공자는 긴말하지 않고 ‘큰 나무 밑을 조심해라.’ 하고 보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자공은 비를 피하려 큰 나무 밑에 들어갔다가 그만 벼락이 때리는 바람에 하마터면 죽을 뻔했지



주일 4부 예배(오후 5시~7시, KBS88체육관)

헤아릴 수 없다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며 지극히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한 결과 오늘날 전 세계로 퍼져나간 사과는 정말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응답이 들려왔다. 중국에서도 4부 예배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역시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겠는가.

목사님은 지난주일 4부 예배에서 직접 설교하시며 관심과 무관심의 차이를 알리고 강조하셨다.

“관심이 있으면 들리고 보입니다. 그러나 무관심하면 아무리 옆에서 큰소리로 외쳐대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주의 인의식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식당주인의

잘라버려서 산사태가 나더군요. 담당공무원들이 생각 없이 일을 처리한 결과입니다. 나무들을 다 없애버리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관심조차 없는 미련한 자들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자들을 마구 갖다 얹혀놓으면 이런 사태가 납니다. 미련한 자는 때와 시기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매사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남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조언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관심을 갖고 뭔가 해보려는 사람은 귀가 열린 자입니다. 남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당연히 지혜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관심 있는 자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요. 그 사건에 스승의 말이 생각나서 도로 찾아와 물었습니다. ‘왜 그 상인이 옳다 하셨습니까? 분명히 제 말이 정답이었는데요.’ 그러자 공자는 자공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놈아, 너야 값 두 배 쳐주면 그 만이지만, 그 놈은 목숨을 걸었으니 사람을 살리는 게 우선이지 않나?’ 자공이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관심이 살리는 겁니다. 분재도 관심을 갖고 매일 돌봐주어야지 하루라도 무관심했다가는 다 죽이고 맙니다. 우리는 매사 살리는 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바요,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주일에배(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0% 대면예배)

1부: 오전 7시 2부: 오전 10시 3부: 오후 2시 4부: 오후 5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문의: 02. 533. 9191



믿음은 행함과 결혼해야 역사가 일어난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약2:14~26)

목회 초기, 저는 목회 성공의 뜻을 품고 기도하던 중 멀리 강원도 황지 골짜기로 성공회 토레이(대천덕) 신부를 뵈러 갔습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하신 목사님이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 목회를 성공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목회초년생인 저는 단숨에 두메산골까지 달려갔던 것입니다. 많은 것을 기대하고 간 저에게 그분은 며칠 동안 일만 시켰습니다. 땅을 파고, 돌을 거둬내고 비료를 주는 등 온갖 잡일을 하게 했습니다.

떠나는 날, 반지하에 마련된 응접실에서 함께 다과를 나누며 저는 “어떻게 하면 목회에 성공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토레이 신부는 아주 짧은 한마디만을 제게 건네셨습니다. “이 목사님, 흠은 속이지 않습니다.”

토레이 신부의 말은 진리 중의 진리였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무를 심으면 무가 나지요. 콩을 많이 심으면 콩이 많이 열리고, 적게 심으면 적게 열리지요. 또 내가 정성을 쏟을수록 더 싹난 것을 거두게 되지요. 이 진리의 말씀은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음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 6:7)는 말씀이 그것이지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눅16:10)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 후로 저는 이 말씀을 심비에 새겼을 뿐 아니라 곧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가 있어도 심지 않으면 열매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이며, 행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약2:26).

배움의 끝은 실천이다

토레이 신부가 먼저 시킨 일은 밭에서 돌을 골라내는 일이었습니다. 옥토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지요. ‘아! 먼저 내 안에서 돌을 캐내야겠구나.’ 저는 과거의 습성을 잘라내는 일부터 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말의 실수가 없게 하려고 제 입에 자갈을 물고 다녔습니다. 또한 청년사업가였던 시절에 즐기던 고급 승용차와 명품 옷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허름하고 평범한 양복에 왕진가방을 들고 철산리, 돼지가 같이 사는 성도들의 집을 심방 다녔습니다. 그리고 신학이라는 굴레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오죽 고향에 안 가봤으면 써서 고향을 발표하나? 오죽 아버지께 대해 모르면 써서 아버지를 말하나?’ 하는 말씀에 대지, 소지를 따져 설교했던 것을 오직 성령에 의지하여 강대상을 밀쳐버리고, 가

운을 벗어 던지고 성령의 감동 따라 설교했습니다.

돌을 골라낸 다음에는 거름을 줘야 옥토가 됩니다. 저는 하루 4시간 기도를 기본으로, 집회가 있을 때면 7시간씩 기도했습니다. 내게 능력을 달라고, 내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달라고, 나도 어느 목사님처럼 찬양을 잘하게 해달라고 청계산에 가서 나무가 뽑힐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목회자, 성공한 사람들, 한 시대를 이끈 위대한 사람들에 대한 책을 다 섭렵했습니다. 더욱이 성경을 다독보단 정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많이 심었

습니



총회장 이초석 목사

다.

많이

심어야

많이 나니까

요.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니까요. 남들

은 교회를 지을 때 저는 대신 오디

오 테이프와 비디오테이프를 전국과 전 세계로 보냈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애들 용돈을 동

전으로 주면서 전 세계에 무료로 테이프

를 보냈습니다. 또한 기도원에 무료로 식

사를 제공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왔는데

밥값 내고 밥 먹는다면 말이 안 되지요. 그

래서 광주의 어느 집사님이 드린 80kg짜

리 아끼바리쌀 200가마니를 기반으로 무

조건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창고에 쌓이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과 속의 사과 씨는 헤아릴

수 있지만, 사과 씨 속의 사과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저는 사과 씨를 열심히 심은 겁

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

만, 점차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

더니 지금은 가는 곳마다 사과가 주렁주렁

열려 부족함이 없고, 그것이 세계 72국에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농사꾼 자녀인 제가 잘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심지 않아도 가

라지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농사를 짓는 제 목회에도 가라지가 났습니다. 이단이니 잘못되었다느니 하면서 가라지가 자라났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그 가라지를 뽑아내려고 했습니다. 가라지는 원수가 뿌리는 거라고 하셨습니다(마 13:28). 그런데 하나님이 “돌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마 13:30)고 하셨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히 10:30)고 하셨습니다

귀는 막고 콧대만을 향하여 질주했습니다. 소리보다 빨리 달리면

리 거든요. 한때 그들이 타협하고 했지요. 그러나 저는 절대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습니

다. 제가 흰 양복을 입었던 이유는 바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리라, 거짓 없이 깨끗하게 살겠다는 의지를 옷으로 표명한 것이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철산예루살렘교회를 오늘

의 예수중심교단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말을 하는 자보다 그 말을 듣고 행동으로 옮긴 자가 더 위대합니다.

믿음은 행함과 결혼할 때 기적이라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학교는 보내주지만 공부는 내가 해야 하고, 부모가 자동차를 사줬어도 기름 치고 조이고 닦는 일은 내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처음에는 열심히 닦고 기름칠도 하지만 나중에는 안 합니다. 타성에 젖습니다. 큰 교회를 이끌던 많은 목회자들이 나중이 안 좋은 것은 바로 첫사랑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대를 옮겨버리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알기에 처음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늘 나를 다잡고 있습니다. 쓰임 받다 버림받을 수 없고, 성령

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타락하면 다시는 회개할 수 없거든요(히 6:6).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히 3:14).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사 친구라 하였고,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습니다. 믿음이 온전케 되는 방법,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 받는 방법은 행함에 있습니다(약 2:22). 도토리를 봉지에 넣어 두면 그대로 도토리지만, 그 도토리를 심으면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내가 하기에 따라 30배, 60배, 100배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어 당년에 100배의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심고 가꾸고 길쌈을 매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팔 심은데 팔 난다

흠은 속이지 않습니다. 땅만 흠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흠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에게도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잘 뿌리십시오. 악을 뿌리면 악이 나고, 선을 뿌리면 선이 납니다. 금화를 베풀면 하나님께 금화여감을 받고, 용서를 베풀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또한 인생의 쓴 뿌리, 자갈을 골라내십시오. 내 안에 더러운 것들, 거짓된 것들, 가증한 것들, 게으름을 뽑아내십시오. 그것이 있으면 옥토가 될 수 없음 같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 되십시오. 냄비신앙이 아니라 진득하게 꾸준히, 항구여일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열매는 뿌리는 자가 거두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자가 거두는 것이니까요. 배움의 끝은 실천입니다. 이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 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시 126:5-6). 할렐루야!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객원컬럼 ::

:: 겨자씨만한 믿음 ::

화목하려면 제물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셨다. 그러나 그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을 한탄하시게 만들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어찌하든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셨다. 때로는 물로 쓸어버리고 노아를 통하여 새로운 창조를 시도해보기도 하였고, 불로 한 도시를 진멸하여 일벌백계를 보이기도 하시고, 율법을 주어보기도 하시고, 끝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어 교훈도 하시고 달래도 보셨다. 모두 실패다.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 듯 마지막 남은 방법을 쓰셨다. 독생자 예수를 화목제물로 쓰시기로 결정하신 것이다. 끝내 죄악된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카드인 아들 예수를 화목제물로 쓰셔서 당신의 자녀로 회복시키는데 성공하셨다.

우리도 생각지 않게 담을 쌓고 사는 사이가 많다. 부모 자식간, 형제간, 성도 간, 이웃 간, 친구 간에 등 돌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 소 닭 보듯 관계만 있을 뿐, 내적 화목이 없이 살아가는 경우다. 오랫동안 담 쌓고 사는 사이라면 하나님처럼 화목제물을 써보면 어떨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아들을 화목제물로 사용하신 것처럼,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말이다. 때로는 그것이 물질이나 물건이 될 수 있고, 때론 진정한 사과나 용서를 구함이 될 수 있고, 지금까지 서운했던 일들을 끝까지 잘 들어주는 것도 화목제물이 될 수 있다.

야곱은 창세기 32장에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치러 오는 형 에서의 위기로부터 벗어나고자 엄청난 화목제물을 에서에게 보냈다. 소 50, 낙타 40, 나귀 30, 염소 양 떼 440마리를 줄줄이 때로 보내어 형 에서와 화목하기를 원한다는 사인을 보내어 마침내 에서가 야곱을 만났을 때는 서로 끌어안고 울게 만들었다. 화목제물의 효력을 본 것이다. 다윗도 사무엘하 9장에 친구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과 손자 미가를 얻으려고 직접 찾아 나선 므비보셋에게 할아버지 사울 왕과 아비 요나단의 재산을 다 돌려주고 종들까지 돌려주어 므비보셋의 마음을 사서 아들 삼는다. 화목제물이 이런 것이다.

정주영 씨가 소 500마리를 트럭에 싣고 분단 45년 만에 휴전선을 열고 북한을 처음으로 방문하여 금강산 관광길을 연 것도, 목사님의 이웃집 개가 지나갈 때마다 짖자 고기 덩어리를 몇 번 던져주니 그 다음부터 짖지 않고 오히려 기다렸단 듯이 꼬리를 흔든 것도 화목제물의 위력이었을 것이다.

내 주변에 지금 담 쌓고 사는 사람, 등 돌리고 사는 사람, 소 닭 보듯 하는 사람 있는가? 화목제물을 보내보자. 머지않아 하나 되고 화목해지는 기쁨을 맛볼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마16:19).

이시대 목사

커트라인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지, 그래도 결혼은 해야지, 그래도 애는 낳아야지, 그래도 자기 집은 있어야지, 내 나이가 이런데 어디서 뭘 하겠나? 그래도 내 체면이 있지!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해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강요받다시피 하는 것이 있다. 아무 생각 없이 남들이 다 하니까 따라하거나 그것이 선행되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거나 자신의 체면 때문에 자신이나 누군가에게 강요하고 강요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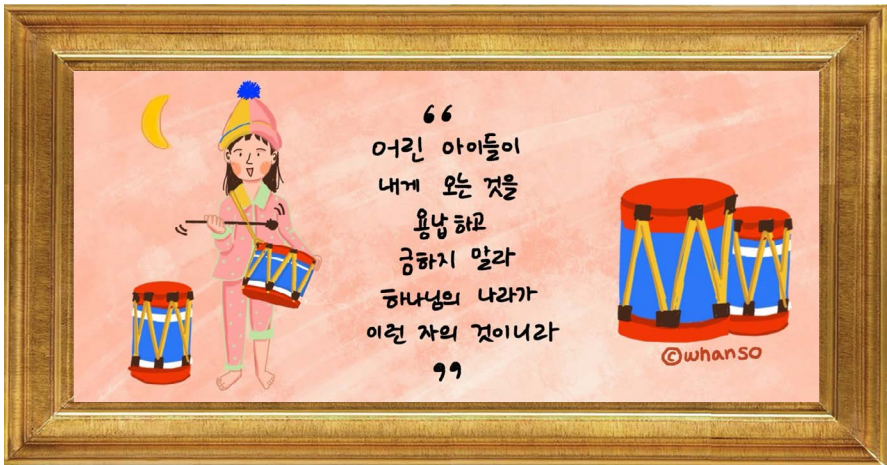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어려운 시기를 겪으며 엄청난 성장을 이뤄왔고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탈바꿈했다. 짧은 기간에 이렇게 성장할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밀바탕에 잠재력과 저력이 있다. 이처럼 엄청난 외적 성장을 이루었고 시민의식도 높은 수준이지만, 삶에 어떤 커트라인이 있어서 어떤 사

람이 그 수준에 도달하면 ‘통과된 사람’이고,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루저’로 정의하는 병폐가 있다. 그 커트라인은 남을 평가하기도 하지만 또한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도 사용한다.

그러나 100억을 가진 사람이 1,000억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처럼 커트라인을 정하는 것은 끝이 없다. 삶과 사람은 계속 변하기 때문이다.

이초석 목사님은 ‘행복에는 커트라인이 없다’고 자주 말씀하신다. 스스로가 행복의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살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씀하신다. 많이 가지면 행복할까? 그렇다면 ‘많다’는 것의 커트라인은 어디일까? 결국 이 커트라인은 내 마음에 달린 것이 아닐까!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신30:15).

김성일 집사
cre8tor@naver.com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언젠가 꿈에 내가 걸어가는데 발목에 뭔가 족쇄처럼 매달고 가는 것이 보였다. 자세히 보니 놀랍게도 쓰레기였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성령의 불로 깨끗이 태워버려야 할 염려와 근심임을 알려주셨다.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의지한다 하면서 결국 염려와 근심을 내가 주렁주렁 달고 다녔던 것이다. 부끄러웠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함(히12:1~2)을 실감한 순간이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 하나다. 어느 시골 할머니가 무거운 짐 보따리를 힘겹게 머리에 이고 걸어가는 게 안타까워 버스 기사가 차에 태워드렸는데 가만히 보니 차 안에서조차 짐을 머리에 이고계시더라는 거다. 짐 내려놓고 편히 가시라고 했더니, 차에 태워준 것만도 고마운데 짐을 어떻게 내리냐고 하셨다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다.

이 이야기는 나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나를 세상 끝 날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은 아닐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간과할 때가 많은 것 같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도 말이다(롬5:8).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다(히11:6). 아브라함을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선자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야말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해드렸지만,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 자들도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아 생명길로 향해야 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신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 하심이니라”(벧전5:7),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빌4:6).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그분은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니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자.

이국진 사모
joyful_jina@hanmail.net

감사합니다

토요일 중고등부 예배 때 무척이나 뜻 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름 아닌 동작기도처 식구분들을 초청해서 지난 9년간의 보살핌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많은 분을 모시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교구를 대표하시는 조장님, 권사님, 그리고 전도사님께서 노량진 교육관을 찾아주셨습니다. 설교 전에 그분들을 단상에 모시고 꽃다발을 전달해드리고 축복송을 불러드렸습니다. 찬양 후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조장님, 집사님~~”, 어린 자녀, 손주뻘 되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크게 감사를 외치자 교구 식구분들은 깊은 감동에 빠지신듯했고, 기뻐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늘 ‘당연히 할 일을 했다’고 하시는 분들이셨지만, 요목조목 따져보니 하나도 당연한 일이 없었습니다. 기도처에서 으레 당연하게 누리던 모든 것이 그분들의 섬김이었고 희생이였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일찍부터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이 기특하다며 때론 점심을 손수 지어 주시기도 하였고, 예배 후에 집에

가는 길에 허기질까 특식을 만들어주셨으며, 화장실에서는 오물이 묻은 휴지통을 언제나 깨끗하게 비워주셨습니다. 저희가 미흡하게 사용하여 불편하신 일이 있어도 눈치 한번 주는 일 없이 마음껏 사용하도록 배려해주었습니다. 그 사랑과 섬김으로 인해 교육관을 위해 기도하며 인내하는 동안 지치지 않고 오히려 더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지난 JCA카데미 때 이시대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과 젊은이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교육해주셨습니다. 총회장 목사님을 도와 지금까지 교회를 이끌어 주신 어르신들이 존경을 받는 교회, 어른들은 자라나는 어린 자녀들을 존중해주며, 젊은이들은 어르신들의 지혜를 배우기에 힘쓰는 아름다운 모습이 함께 어우러지는 교회가 되자고 하셨습니다. ‘흐르는 물 한 컵을 떠준 은혜도 잊지 말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감사는 코로나의 어둠을 뚫어내는 돌파구였습니다. 중고등부와 제가 그랬던 것처럼 성도님들께서도 작은 감사로 시작해서 큰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현승 목사

:: 성도간증 ::

:: 빛이 되리라 ::

꼭 한번 간증하고 싶었습니다



제 나이 이제 87살입니다. 내게 삶이 얼마나 더 남았는지 모르지만, 그전에 한 번은 꼭 간증하고 싶어서 모자라지만 글을 씁니다.

저는 26세 때 혼자가 되었습니다. 어린 4남매를 남기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슬픔보다 애들을 어떻게 먹이고 교육시킬까 그 걱정이 앞섰습니다. 정말 이것저것 안 해본 일없이 닥치는 대로 일하면서 먹고 사느라 애쓰며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친정어머니가 곧 돌아가실 것 같다는 소식을 받았습니 다. 부랴부랴 달려갔더니 어머니는 나에 게 운명 바로 전에 교회에 나가라는 유언 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를 안 나 갔습니다. 예수를 안 믿은 거지요. 살기도 바쁘데 한가하게 교회 다닐 시간이 없었 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덜컥 병이 들었 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들어 동네교회에 나갔습니다. 1년을 새벽기도도 한 번 안 빠지고 열심히 나갔습니다.

1년 지나고 나니까 세상 것이 보이고, 뭐 달라진 것도 없고 하니 교회 나가기가 싫 어서 안 나갔습니다. 그렇게 한 6개월 정 도 지났을까, 뼈마디 다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류머티즘성 관절염이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이건 부자병이라 못 고친다 해서 한의원에 금침을 맞으러 1년을 다녔습니 다. 1년 가까이 날마다 금침을 맞아도 효

과는 없었고, 결국 돈만 바닥이 났습니다. 침은 맞아야겠고 해서 아들 공장에서 일 하는 며느리 친구에게 25만 원만 빌려달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친구라는 애가 돈이 없다며 거절하고는 그 사실을 우리 며느리에게 고자질하는 바람에 가정불화가 났습니다. 며느리가 '자기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왜 남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나며 화를 냈습니다. 몸은 아프고, 돈도 없고, 며느리 타박까 지 들으니 정말이지 살 맘이 없어졌습니 다. 그래서 파주에 있는 어느 기도원에 가 서 회개하고 금식이나 하자고 집을 나섰 습니다. 금식하다 죽으면 천국 간다는 말 은 들었거든요.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기 도원에 가서 3일 금식을 시작했다가 다 시 10일 금식을 했습니다. 10일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뭘 해줄 줄 알았는데 아무 것도 오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었습 니다. 그래서는 집에 와서 10일 보호식을 하고 다시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국말이 입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 까? 중국말이 막 나오더니 한국말로 통변 을 막 하는 겁니다. 나는 너무 기뻐서 울 다가 웃다가 울다가 웃다가 했습니다. 맘 이 너무나도 기쁘니까 죽을 생각은 어디 로 썩 가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영안이 열 려서 나를 괴롭히는 귀신을 봤고, 그 귀신 과 대화하고 쫓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아픈 곳이 썩 나아버렸어요.

기도원에 다녀와서 어느 날 기도를 하고 미장원에 갔습니다. 미장원에서 머리를 하고 아무도 없어서 누워 있었는데 하나 님은 어디에나 계시나 봅니다. 그때 환상 이 열렸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 집에 축 복해주러 왔노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날개가 달린 천사가 "하나님께서 심부 를 보내서 왔어요." 하는 것이었어요. 그 후로 온몸에 병이 다 낫고 집안에 좋은 일 이 계속되었습니다. 큰아들이 그 전에 세

상을 떠났는데 내 입에 "네가 깨닫지 못해 서 일군이를 데리고 갔고, 천부께서 받으 셧느니라. 너희 어머니 눈물의 기도가 하 늘에 상달되었느니라. 너는 나의 신부이 고 나는 너의 신랑이니라. 네가 있을 곳을 예비해놓았노라."고 통변이 나왔습니다. 어느 날 성남 단대동에서 노방전도 TV 로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반가웠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몸 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교회가 있다 는 사실이 반가워서 바로 우리 교회로 오 게 되었습니다. 나를 예수중심교회로 이 끄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먼저 성령의 역사를 맛보게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쁘고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 을 때면 뒤로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몸 이 조금만 찌뿌둥해도 저는 목사님께 안 수를 받습니다. 그러면 거짓말처럼 하나 도 안 아픕니다.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3일간 기도했더니 들어가기 어렵다는 LH아파트를 하 나님이 주셨습니다. 나의 신랑이신 예수 님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아들이 절에 가 있어서 아들을 위 해 늘 기도하며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해 달라고 했더니 4년 만에 응답을 받았습 니다. 여자 목사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부터 지금까 지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건강하게 잘 살 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 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적지만, 목사님과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 계속 기도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 래서 천국에 지어지고 있는 제가 거할 집 을 아름답게 완성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을 너무 사랑하고, 우리 예수중심교회를 너무 사랑합니다. **분당교구 문보배 권사**

:: 책을 펴다 ::

상상력을 제한하지 말라

소나무는 대개 35m까지 자란다고 한다. 그런데 왜 분재용 화분에 담긴 소나무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성장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분재 기술자들의 손길 때문이다.

그들은 분재의 성장을 막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나무의 뿌리와 꼭대기에 있는 가지를 계속해서 잘라준다고 한다. 또 뿌 리가 내릴 만하면 화분을 갈아주어 성장 할 수 없게끔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준다고 한다. 오로지 그 소나무가 생존할 수 있을 만큼만 허용하고 그 외에 모든 성장 조건을 차단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함 으로 그대로 두면 하늘을 향해 치솟아 오를 수 있는 소나무를 일개 조그마한 화분 속에 담아버리는 것이다.

사람도 이와 별반 다를 게 없다. '난 안 돼', '여기까지가 내 한계야' 하면서 스스

로 자포자기하는 것은 한참 성장할 수 있 는 '자기 자신'이라는 나무의 뿌리와 꼭 대기의 가지를 잘라버리는 어리석은 행 위와도 같으며, 이처럼 스스로 한계를 긋 고 제한하고 포기하는 것은 분명 자기 안 에 계시는 하나님을 제한하는 믿음 없는 행동이다.

코이라는 잉어가 있다. 그런데 코이는 작 은 수족관에서는 3~5센티밖에 안 자라지 만, 큰 어항과 연못에 넣으면 12~15센티 까지 자라고, 강물에 넣으면 90~120센 티까지 자란다.

사람도 코이처럼 생각의 크기에 따라 인 생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생각의 크 기, 곧 상상력이다. 상상력이란 '마음속 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영상(映像) 을 만들거나 경험을 초월한 세계를 만드 는 정신적 능력'이다. 이를 성경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 하는 것들의 증거니"(히11:1)라고 말하고 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9:23),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 니라"(요14:12).

당신은 무한대로 뻗어나갈 수 있는 나무 다. 상상력을 무한대로 키우면 그것이 성 장점이 되어 때가 되면 아름드리나무가 되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3).

이초석 목사 저서 '사랑이 무르익어야 결혼에 골인한다' 중에서

순종하면 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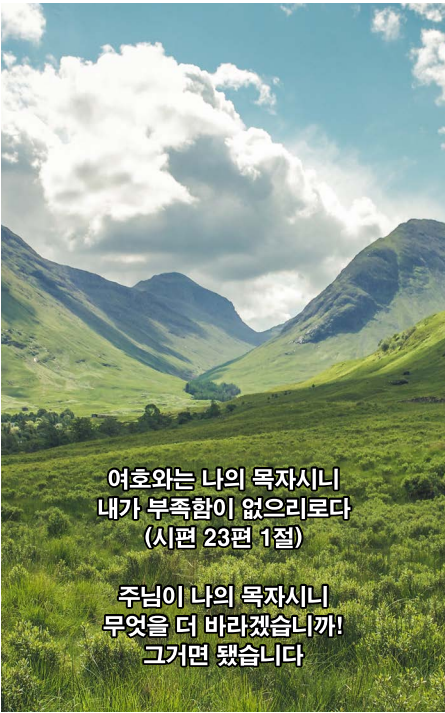
얼마 전부터 내가 속한 청장년부도 88체 육관에서 대면으로 수요예배를 드리라는 목사님의 말씀이 있었다. 오랫동안 온라 인 예배에 젖어있기도 했고, 먼 거리로 인해 포기해야 할 일도 많아서 첫 주에는 집에서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아침에 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 총회장 목사님께서 2체 육관에 사람이 많이 오지 않을 걸 걱정하 시며 누가 오고 있는지, 누가 안 왔는지 를 남들 모르게 체크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그 모습이 내 마음에 걸 렸다. 나라도 체육관으로 오길 원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잠시 후 청년부와 청장년부가 함 께하는 새벽기도 모임이 끝나고 담당 목 사님께서 다시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수요예배는 체육관으로 참석해달라고 하 셧다. 벌써 두 번째다. 그러나 아직도 내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다.

오후가 되니 갑자기 동생에게 전화가 걸 려왔다. "오빠, 오늘 철야 체육관으로 올 거야?" 첫 이야기가 이 말이었다. 벌써 세 번째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오늘 체육관으 로 안 갔다가는 큰일 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오라고 여러 차례 사인을 주시는데 경고를 무시했다가 무 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일 아니겠는가? 결국 체육관으로 가서 은혜롭게 예배를 잘 드렸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총회 장 목사님께서 다시 내 꿈에 찾아오셨다. 목사님의 차를 타고 내 평생 가보지 못 한 최고의 식당으로 목사님과 함께 식사 하러 가는 꿈이었다. 잘했다고 주시는 상 인 것 같았다.

작은 간증이지만 나 같은 부족한 자에게 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늘 독려해주시 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실 목사님이 하 라면 하면 될 일이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체육관에 오라면 오고, 잠시 멈추라 면 멈추면 될 일이다. 나와 같이 주저하 고 있는 또 다른 성도님들께도 이 글이 작 은 도전의 씨앗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부족하지만 함께 나눠본다.

장명훈 집사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